강진군 신전면 사초마을 바지락 양식장에서 주민들이 바지락을 채취작업을 하고 있다. 〈강진군 제공〉

강진군, 바지락 고장 명성 되찾는다

신전면 사초마을 채취 종패 5t 5~6월 중 살포…매년 모래 살포 등 안정적 서식장 조성 박차

강진군이 바지락 고장의 옛 명성을 되찾기 위해 종패 살포 등에 안간힘을 쏟고 있다.

강진군에 따르면 신전면 사초마을 바지락 양식장에서 최근 어촌계 등 주민 100여 명이 모여 공동 채취 작업을 실시했다.

이번에 채취한 바지락은 지난해 5월 군이 강진만 패류를 살리기 위해 총 사업비 6000만 원을 투입해 사초리 등 7개 어촌계에 뿌린 종패가 생육한 것이다.

바지락은 살포 후 고수온과 태풍에도 잘 견뎌 4㎝ 크기로 잘 자랐다.

강진산 바지락은 80~90년대에는 생산량이 많지는 않았으나, 살이 통통하고 맛이 좋아 서울 노량진 수산시장에서 가장 빨리 경매가 이뤄질 만큼 명성이 자자했다.

강진군은 2년 전부터 바지락 자원 회복을 위한 종패 살포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바지락 서식 환경 조성을 위해 양식장 모래살포 사업도 매년 추진하고 있다.

올해는 오는 5~6월 중 관내 10개 어촌계에 바지락과 모래를 살포할 계획이다.

임창복 강진군 해양산림과장은 "바지락, 꼬막 등 패류살포 사업이 어촌계의 안정적인 소득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사업을 확대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며 "어패류가 잘 자랄 수 있는 서식장 조성을 위해 어촌계와 바다환경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l@kwangju.co.kr

나주시 '찾아가는 농기계 수리·교육' 호응

이달 중순까지 20회 실시
사고 예방·자가 정비 역량 높여
8~9월 예초기 순회수리도 예정

나주시가 마을별 찾아가는 농기계 수리 봉사를 겸한 사고예방 교육에 나서 농가의 호응을 얻고 있다.

나주시는 본격적인 영농철에 대비해 농업인의 영농 편의와 안전을 위해 '찾아가는 농기계 수리·사고예방교육'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매년 추진하는 농기계 순회 수리는 농기계임대사업소 전문 인력이 마을을 방문해 점검·수리를 실시하고, 농업인의 자가 정비 역량을 키워주고 있다.

올해는 남평읍 우산2구 마을을 시작으로 4월 중순까지 20회에 걸쳐 점검·수리,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8~9월에는 추석 벌초 집중시기에 대비해 예초기 순회수리를 10회 실시할 예정이다.

수리비는 농가당 2만원 이하는 무상이며, 비용 초과 시 별도 공임비용 없이 부품 원가만 농가에서 부담하면 된다.

자세한 일정·장소는 나주시농업기술센터 누리집에 게시된 교육 일정표를 참조하면 된다.

나주시 농기계임대사업소 전문인력이 마을을 찾아 농기계를 수리하고 안전한 사용법에 대해 교육하고 있다. 〈나주시 제공〉

앞서 나주시는 지난해 관내 23개 마을, 농기계 1359대에 대한 점검·수리를 통해 영농 편의를 제고하고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에 노력했다.

나주시 관계자는 "이번 순회 수리 교육을 통해 인구 고령화와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들의 영농 편의와 안전한 농기계 사용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나주=김민수 기자 kms@kwangju.co.kr

함평군, 소외계층에 '영양 밥상'

전남도 사회혁신 공모 선정…여성단체와 제철 보양식 제공

함평군이 전남도 주관 사회혁신 공모에 선정돼 지역 소외계층을 위한 '사계절 행복 가득한 밥상' 사업을 추진한다.

2022년 사회혁신 공모는 주민 삶과 밀접한 지역 문제를 주민과 지역공동체가 주도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함평군의 사계절 행복 가득한 밥상은 코로나19로 경로당 등이 문을 닫아 소통이 단절된 홀몸노인, 장애인 등 결식 우려 취약계층에 분기별로 제철 음식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군은 지역 8개 여성단체와 함께 계절마다 지역 내 소외계층을 찾아가 영양 가득한 제철 보양음식을 만들어 전달하고 안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함평군 관계자는 "어려운 이웃을 지역 주민 스스로 돌보자는 취지에서 이번 사업을 추진한다"며 "앞으로도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민·관이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함평=한수영 기자 hsy@kwangju.co.kr

장성군, 농어민 공익수당 이달 전액 지급

7746명에 60만원씩 46억원 지역화폐로 제공

장성군이 지역 농어민을 대상으로 농어민 공익수당 46억원을 전액 조기 지급한다.

장성군은 최근 '농어민 공익수당 심의위원회'를 열고 올해 공익수당 지급 대상자 7746명을 최종 확정하고 4월 중 조기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 같은 조치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민의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이뤄졌다.

지급하는 공익수당은 1인당 60만원이며, 전액 '장성사랑상품권'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상품권 지급은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마을별·시간대별로 나눠 진행한다.

지급대상자 여부는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확인하면 된다.

장성군 관계자는 "공익수당 조기 지급이 유류비와 농자재 가격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어민은 물론 상품권 지급으로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성=김용호 기자 yongho@kwangju.co.kr

화순군, 서민층 가스안전장치 보급 추진

20일까지 60세 이상 가구 신청

화순군이 서민층 가스안전장치 보급 사업을 추진한다.

화순군은 금속 가스배관이 설치된 60세 이상 서민층 가구 등을 대상으로 타이머 콕 설치를 지원하는 가스안전장치 보급 사업을 한다고 밝혔다.

군은 올해 283가구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자는 20일까지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지원 대상은 60세 이상 서민층, 사회복지시설 등이다. 다만, 고무호스로 설치된 가구는 제외된다.

타이머 콕은 설정 시간이 되면, 가스 중간밸브를 자동으로 잠가주는 장치다.

화순군 관계자는 "가스 사고에 취약한 60세 이상 서민층 가구들의 많은 신청을 바란다"며 "군민의 안전한 에너지복지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화순=조성수 기자 css@

담양군 국산 김치 인증업소 식자재 구입비 지원

164곳 대상 최대 25만원

담양군이 국산 김치 소비 촉진을 위해 지역 내 국산 김치 사용 인증업소에 식자재 구입비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100% 국산 재료로 만들어진 김치를 사용하는 외식, 급식업소임을 국산김치 자율표시위원회(김치협회)에서 지정해 주는 제도인 '국산김치 사용 인증'을 받은 음식점으로 담양군은 164개소가 인증 완료됐다.

국산 김치 사용 인증을 받은 업소는 국산 김치 제조에 필요한 배추, 절임배추, 고춧가루, 소금, 마늘, 젓갈 또는 김치 완제품을 전남도가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 '남도장터'를 통해 업소 당(연 1회) 최대 25만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인증업소는 읍면사무소 산업계에 신청하면 된다.

미인증업소는 '국산 김치 자율표시제' 인증절차를 먼저 거쳐야 한다. 인증신청은 읍면사무소에 지정신청서와 국산 김치 재료구입 내역서 등을 제출하거나 김치협회에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담양군 관계자는 "국산 김치 사용 확대로 소비자가 믿고 먹을 수 있는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지역 농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담양=노영찬 기자 nyc@kwangju.co.kr